

# 노년학의 국제동향

Dr. Simon Bergman  
(텔아비브대학 교수)

## 1. 서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원은 노인문제를 다룰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적인 차원으로 노인문제를 조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노년학(Gerontology)은 과학의 일부로서 노화를 원인, 기원, 영향등을 가지고 누구나 경험하는 공통된 과정으로 보며, 노년기를 인간 발달의 한 단계로서, 노년을 개인으로서 혹은 사회적으로 응집된 집단으로 고려, 노화가 일어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작용과, 노화가 일어나는 환경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정의는 노년학의 다면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노년학은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동시에 여러가지 다른 중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분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즉 노인과 관련된 문제전체를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은 생리-심리-사회적 존재(bio-psycho-social being)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화과정을 다루는 학문인 노년학에서도 이 세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노년학의 경향을 논하기 위해서도 이 세가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의 눈으로 과학의 한 분야를 보는 경우, 이것을 새로운 경향이나 실험적인 방향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보거나 혹은 압력이나 새로운 경향의 결과로 일어나는 증속변수로 볼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가지의 측면을 모두 보기로 하겠다. 즉 노년학을 ①연구의 측면에서, ②교육이나 교수(Teaching and education) 측면에서, ③그리고 실무(practice)면에서 살펴보겠다. 앞의 두가지는 세번째의 실무 적용에 필요한 지적인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노년학은 이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그리고 실무(practice)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가지는 각각으로서, 통합체로서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 2. 연구

앞으로 노년학의 경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두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즉 1) 장기적인(long-range) 또는 단기적인(short-range)관점, 거시적(macro) 미시적(micro)관점의 노년학 연구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것은 노년의 문제가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지난 10년간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여러 국제회의에서 천명되었듯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노인복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계속되어야 한다. 금세기 남은 기간동안 더욱 중요한 것은 노년학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측면이라 하겠다.

인구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크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가 지역적인 현상이었다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바뀐 것은 노령화를 사회

본 글은 서울의대 간호학과가 지난 5월 2~3일 주최한 노년학 및 노인간호학세미나의 내용임(편집자 주)

적인 기능으로 또는 사회적 현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즉 한 사회, 경제, 정치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의 요구나 해결방안이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범국가적인(cross-national) 협력에 있어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시도가 노년학자들이 범우주적이고,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는 노령화와 그 결과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Foundations of a policy for the aged in the eighties and beyond: A message to the WAA of the U.N, 1982"를 발표하여 현재의 노년학 지식을 돌아보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노년학회가 과학적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상아탑을 떠나서 처음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령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므로 중요하다.

WHO가 U.N에 보고한 것도 "노년학이 학문으로 성립되었다면 다른 학문의 학자들이 사회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것 처럼 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학회에서는 노년학의 발달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정책 수립이나, 결정에 중요하다는 것도 주장하였는데 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대단위 역학적 연구(large epidemiological studies): 기질적 뇌종양군(organic brain disease): 국가간의 비교연구(cross-national comparative researches): Longitudinal study, 노화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 인력자원의 계획과 활용; 그리고 경비의 효과적인 사용등이며 국제적인 협조에 의해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년학을 연구가능한 분야로 생각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들은;

1. 교육이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측면과 비교하여 연구에 얼마만한 자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2. 우리 연구에서 우선 해야하는 것은 기초연구인가? 응용연구인가?

3. 연구에 투자한 정도와 결과의 균형은 어떠한가? 연구의 결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4. 연구에 있어서 도덕적인 혹은 사회적인 자유와 제약은 무엇인가? 과학적인 발전으로 사회적인 혹은 실제에 적용시 문제는 무엇인가?

유명한 생리 노년학자인 Hayflick은 "만일 우리의 연구로 인해 얻은 성취가 오히려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은 심히 혼란시킨다면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거시적인 노년학의 입장에서 노년학의 철학이 존재해야한다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실험, 크리닉, 자원 서비스등을 실행하려고 하였지 질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적었고 현재에만 급급하여 미래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또한 자원의 투자에 있어서나 건강분야에 있어서 연구에 투자되는 자원의 비율은 다른 과학 분야에서 연구에 투자되는 자원의 비율에 비해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frac{1}{10}$ 정도). 앞으로 많은 연구에 의해 노년학의 지식이 바탕이 확고해 진다면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입장에서 개인의 노령화와 관련된되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즉 bio, psycho, social 측면과 원인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bio, psycho, social한 존재이므로 인간 전체를 보기 위한 노력으로 Multidisciplinary approach 형태의 노년학의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 3. 교 육(Teaching and Education)

노년학 분야의 교육도 다른 측면과 동시에 발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년학 분야에서 잘 훈

변될 연구자부터 실무자까지의 인력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노년학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간의 평생동안의 교육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개념을 교육조직 전체에 심어 줄 필요가 있다.

현재에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자신의 노화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관리(Self-Care)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초를 구축하고, 노인에 필요한 개인적인 혹은 환경적 지지를 주기 위하여 가족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4. 실무적용(practice)

세번째로 노년학의 실무적용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이 분야는 노년학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발달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 분야야말로 직접적으로 수백만의 개인들과, 수백의 사회의 관심사이며 또한 사회적인 자원을 투자하기 위한 정책결정자들과 노인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노년학의 실제적용에 얼마나 비용을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발달도상국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정책결정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유명한 노년학자인 I. Rosow는 선진사회에서는 노령화에 관련된 비용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이며 문제는 오히려 도덕적인 딜레마라고 하였다.

우리의 자원을 노인의 안녕상태를 극대화 시키는데 사용해야 할지, 혹은 심한 장애를 가진 노인의 생존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을 없애는 데 사용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이나 노인의 안녕상태의 증진이 노인의 질병치료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개념이 자리를 굳히고 있다.

가족이 지지자원(Source of Support)로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의 질의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필연적인 사실이다. 발달도상국에서의 과

제는 어떻게 함으로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세대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존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Care)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과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자신이 가족은 노인의 건강관리에 지지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노년학의 실제적용시에 그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

노인들의 활동과 사회참여도 그들의 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에서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원하는 노인에게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취업이 다른 세대의 실업을 의미한다면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노령화는 사회적인 현실이며 발달로 인한 산물이며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에 이 늘어난 수의 노인들이 어떻게 살것인가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보아온 노인들은 생의 질에 대해 항상 만족하지는 않지만 자신감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력적이고 건강하며, 자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현재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노인들의 앞으로의 안정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인가?

#### 5. 결 론

그렇다면 노년학에 있어서 연구, 교육, 실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무엇인가? 그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령화 문제의 세계화(globalization)과 인문과학분야에서 노년학을 중요한 부문으로 부각시키는 것
2. 노년학의 국제간의 연구, 계획, 교류, 협조의 증가
3. 노년이라는 기본적인 현상의 공통성의 범

〈14페이지에 계속〉

b) The family of the consumer

c) Society/community or emerging partnerships between two of the three or between all three factors

Examples from different countries on the forms of funding: Welfare States (Sweden, England, Israel): USA: the developing countries etc.

Growing budgets needed to meet needs of care

Can modern society afford old age (is it a financial or a moral question?)

Three possible models for our approach (philosophy) in this question (based on Neugarten and Nelson)

1) Age (old age) as the relevant cause for needs and the basis for rights to resources of society

2) need (and not age) as the relevant cause for eligibility for resource allocation

3) Old age as "social veteranship"- (Old age is recognized as an earned status and the older people have rights due to their experience, wisdom, and contribution made to their societies. This means a principle of "retributive justice" for contribution made in the past which society feels it is obliged to repay. Questions:

a. The implications of these approaches for the professions (including nursing in the area of aging)

b. Which one of the above three approaches (1,2,3) seems to you applicable or most appropriate to your society (Korea)?

---

<8페이지에서 계속>

주 내에서 그 요구와 해결에 있어서는 문화적 특수성을 인식한다.

4. 단일전문직 중심주의의 추세가 감소되고 노년문제 중재에 있어서의 다변화가 강조됨

5. 노년학에 있어 도덕적, 철학적, 사회적인 내용이 강화됨

6. 노인들 자신과 그들의 자연적인 사회 지지

조직이 노인문제와 관련된 계획, 건강관리 등에 참여가 커지고 책임도 증대됨

7. 노년문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질

8. 노년학의 연구,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실 무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요구나 가능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성이 증가됨.